

조선전기 『風雅翼選詩』의 간행과 『選詩補註』의 주해방식에 대하여*

노요한**

< 目 次 >

- | | |
|---------------------|-----------------------|
| 1. 들어가며 | 4. 『선시보주』의 興說 |
| 2. 조선에서의 『풍야익선시』 간행 | 5. 앞으로의 과제: 마무리를 대신하여 |
| 3. 『선시보주』의 주해 방식 | |

< 국문 초록 >

세종은 활자로 서적을 간행하여 문신들에게 반포하고 지방관아로 하여금 정판 간행케 함으로써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詩學을 진흥시키기 위해 경자자로 『選詩演義』(1422, 1434)를 간행하고, 『分類補註李太白詩』(1435), 『唐柳先生集』(1440)을 갑인자로 간행하였으며, 별도로 『唐詩鼓吹』·『續鼓吹』도 갑인자로 간행하였다. 그 후 세종은 劉履의 『風雅翼選詩』를 갑인자로 간행하였다.

『風雅翼選詩』는 劉履가 주희의 유의를 계승하여, 『문선』에서 시를 선별하고 『문선』에 누락된 시를 채록하여 『選詩補註』를 엮고, 다시 唐虞 이래 썸에 이르기까지 傳記와 諸子集에 산견하는 古歌辭를 선별하여 『選詩補遺』를, 그 외 唐宋의 여러 작품들과 주희 『감흥시』를 선하여 『選詩續編』을 엮은 것이다. 우리는 또 세 편 모두에 대해 주해를 붙이되 『선시보주』의 경우 『시집전』과 『초사

*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 고려대학교 국문과 박사과정 / yhnoh1214@hanmail.net

집주』의 방식을 따랐다.

劉履의 『보주』는 형식에 있어 『시집전』과 마찬가지로 크게 訓詁를 설명하는 圈內註와 작자의 旨意를 풀이하는 圈外註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내용상 『보주』는 시를 逐句 부연하여 시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시집전』의 주해방식과는 달리, 주석자 자신이 시인의 입장이 되어 詩想의 흐름을 따라가며 詩語에 나타난 시인의 심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보주』의 홍설은 『시집전』의 홍설을 대체로 따랐다.

주제어: 『風雅翼選詩』, 『詩集傳』, 『文選』, 註解, 興說, 世宗, 劉履, 朱熹

1. 들어가며

세종은 庚子字·甲寅字·丙辰字 등의 활자로 서적을 간행하여 문신들에게 반포하고 지방관아로 하여금 정판 간행케 함으로써,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詩學을 진흥시키기 위해 세종은 1422년(세종 4) 10월에 경자자로 인쇄한 『選詩演義』를 배포하고 1434년(세종 16) 8월에도 그 책을 반포하였다. 1435년(세종 17)에는 『分類補註李太白詩』, 1440년(세종 22)에는 『唐柳先生集』을 갑인자로 간행하였다. 그리고 별도로 『唐詩鼓吹』·『續鼓吹』도 갑인자로 간행하였다. 그보다 앞서 1439년(세종 21)에는 청주에서 『詩人玉屑』을 목판으로 간행케 하였다.¹⁾

이중 曾原一의 『選詩演義』는 『文選』의 시를 가리고 도연명 시 등 일부를 더하여 300수의 시를 선하고 諸子의 事實을 參究하여 疏註를 붙인 책이다. 『文選』은 시를 주제별로 분류했지만 이 책은 시대순으로 개편하고, 漢나라부터 梁나라까지의 작품을 선별하여 인물별로 배열하였다. 본문에서는 각 시인의 小傳을 低2格으로 기록하고 시 본문을 수록한 후 주석을 低1格으로 붙였다. 주석은 증원일의 견해, 李善注·五臣注의 초록, 陳宗道·

1)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 태학사, 2012.

林實夫·曾醇·黃文雷·利登·何登·黃應龍·敖陶孫·謝子允의 견해를 인용하였다.²⁾

그 후 세종은 원나라 말 명나라 초 劉履가 『선시연의』의 뒤를 이어 엮은 『風雅翼選詩』를 갑인자로 간행하였다.³⁾ 劉履의 자는 坦之이며 上虞 사람이다. 명나라에 들어 벼슬에 나가지 않고서 自號를 ‘草澤間民’이라고 하였다. 洪武 16년(1383)에 천하의 博學한 선비들을 구하라고 조칙이 내리자 浙江布政使가 억지로 그를 천거, 京師에 이르러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연로함과 질병을 이유로 고사하였다. 鈔幣를 내리고 사람을 보내 돌아오게 하였으나 미처 행하기 전에 즐하고 말았다. 『浙江通志』의 「隱逸傳」에 입전되어 있다.⁴⁾ 戴良은 至正 23년(1363)에 작성한 「風雅翼序」에서 『風雅翼選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⁵⁾

-
- 2) 芳村弘道·金程宇, 「關於孤本朝鮮活字版『選詩演義』及其作者曾原一」, 『古典文獻研究』 12, 鳳凰出版社, 2009.
- 3) 『風雅翼選詩』는 『選詩補註』, 『選詩補遺』, 『選詩續編』으로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제는 각각 ‘選詩’, ‘選詩補遺’, ‘選詩續編’이다. 총목에는 ‘風雅翼選詩總目’ 아래에 『選詩補註』, 『選詩補遺』, 『選詩續編』가 저록되어 있다. 서명에 대해 戴良은 1363년 작성의 서문에서 “『補註』 8권, 『補遺』 2권 『續編』 5권으로 모두 15권이며, 모두 風雅의 羽翼이 될 만하므로 통칭하여 『風雅翼』이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曾日章의 서문 역시 서명을 『風雅翼』으로 하였다. 그런데 1361년 작성의 謝肅 서문과 1365년 작성의 夏時 서문에서는 서명을 『選詩補註』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는 총목을 따라 『風雅翼選詩』로 통칭하기로 한다. 윤병태, 『韓國古書綜合目錄』(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68)에는 『選詩補註風雅翼』의 제목으로 저록되어 있다.
- 4) 「四庫提要·風雅翼」, “履字坦之, 上虞人. 入明不仕, 自號草澤間民. 洪武十六年, 詔求天下博學之士, 浙江布政使强起之, 至京師, 授以官, 以老疾固辭. 賜鈔遣還, 未及行而卒. 『浙江通志』列之「隱逸傳」中.”
- 5) 「風雅翼序」, “『風雅翼』者, 中山劉坦之先生之所輯錄, 既繕寫成書, 其友謝君肅來告曰: ‘先儒朱文公, 嘗欲掇經史韻語及『文選』古辭, 附于詩楚辭之後, 以爲根本準則, 又欲擇夫『文選』以後之近古者, 爲之羽翼與衛焉. 書未及成而卽世. 吾鄉劉先生, 蓋聞文公之風而興起者也. 故取蕭昭明所選之詩, 精擇而去取之, 至其注釋, 亦以傳詩注楚辭者爲成法, 所謂『選詩補註』者是也. 他若唐虞而降, 以至于晉, 凡古歌辭之散見於傳記諸子集者, 則又別爲簡拔, 題之曰『選詩補遺』, 此外又有『選詩續編』, 乃李唐趙宋諸作, 二編亦皆有注, 視補註差略. 『補註』凡八卷, 『補遺』二卷, 『續編』五卷, 合十五卷, 以其可爲風雅之羽翼也, 故通號曰『風雅翼』. 願序而傳焉.’”

『風雅翼選詩』는 中山 劉坦之(劉履) 선생이 輯錄한 것이다. 이미 繕寫하여 책을 이룬 후 그의 벗 謝肅 군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先儒 朱文公이 일찍이 經史의 韻語와 『文選』의 古辭를 掇拾하여 『시경』과 『초사』의 뒤에 첨부하여 근본 準칙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또 『문선』 이후 古詩에 가까운 시를 선택하여 羽翼과 輿衛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책이 완성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고을의 劉 선생은 文公의 遺風을 듣고서 興起한 분입니다. 그래서 蕭昭明(蕭統)이 선별한 시를 취하여, 정밀하게 선택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였습니다. 그 주석에 이르러서는 『詩集傳』과 『楚辭集註』의 주석방식을 範칙으로 하였으니 이른바 『選詩補註』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唐虞 이래 晉에 이르기까지 傳記와 諸子集에 산견하는 古歌辭를 다시 별도로 선별하여 이를 『選詩補遺』라고 하였고, 그 외에 또 『選詩續編』이 있는데 바로 李唐과 趙宋의 여러 작품들입니다. 이 두 편에도 모두 주석이 있는데, 『補註』에 비해 약간 소략합니다. 『補註』 8권, 『補遺』 2권, 『續編』 5권으로 모두 15권이며, 이들은 모두 風雅의 羽翼이 될 만하므로 통칭하여 『風雅翼』이라고 합니다. 원컨대 서문을 쓰시어 후세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戴良은 謝肅의 말을 빌려 劉履의 『風雅翼選詩』는 주자의 遺業을 완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곧, 주희는 『시집전』과 『초사집주』에 이어 經史의 韻語와 『文選』의 古歌辭를 수습하여 시의 근본 準칙으로 삼고, 이와 함께 『문선』 이후의 시 중에서 古詩의 風格에 가까운 작품들을 선별하여 그 由依로 삼으려 하였다. 하지만 완수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런데 劉履가 주희의 遺風을 입어 『문선』에서 시를 선별하여 『選詩補註』를 엮고, 다시 唐虞 이래 晉에 이르기까지 傳記와 諸子集에 산견하는 古歌辭를 선별하여 『選詩補遺』를, 그 외에 唐宋의 여러 작품들을 선하여 『選詩續編』을 엮었다고 하였다. 또 세 편 모두 주석을 붙이되 『선시보주』의 경우 『시집전』과 『초사집주』의 방식을 따랐다고 하였다.⁶⁾

『風雅翼選詩』는 『選詩補註』, 『選詩補遺』, 『選詩續編』의 3종으로 구성

6) 「四庫提要」는 작품 선택의 大旨은 眞德秀 『文章正宗』에 근본하였고 銓釋의 體例는 모두 朱子 『詩集傳』을 準칙으로 삼았다고 하였다.[其去取大旨, 本於眞德秀『文章正宗』, 其銓釋體例, 則悉以朱子『詩集傳』爲準.]

되어 있다. 범례에 의하면 『풍아익』은 『문선』에서 212수를 선별하고, 추가로 『문선』에서 누락된 陶淵明의 시 29수를 도연명의 문집에서, 鄺炎의 시 2수를 『後漢書』에서, 曹子建의 「怨歌行」 1수를 『文章正宗』에서, 완적의 「詠懷」 2수를 『阮嗣宗集』에서 각각 채록하여, 모두 246수의 시를 수록하였다.⁷⁾ 그리고 그밖에 唐虞에서 핍에 이르기까지 傳記와 諸子書 및 樂府集에 수록된 歌謠와 古詞 42수를 별도로 채록하여 『選詩補遺』를 엮고,⁸⁾ 당송대 시인들의 작품 1백여 수와 주희의 「감흥시」 20수를 뽑아 『選詩續編』을 엮었다. 「感興詩」를 권말에 둔 것은 주희가 『楚辭後語』의 뒤에 「鞠歌」와 「擬招」를 둔 예를 따른 것이다.⁹⁾

『풍아익선시』에 대해서는, 박철상(2004)에서 白光弘 내사본 『선시』의 간행과 그 서지적 의의에 대해 논증한 바 있으며, 심경호(2012)에서는 『풍아익선시』의 간행사실과 그 의의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본고는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풍아익선시』의 간행사실을 개괄하고 『풍아익선시』가 가지는 주해로서의 특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 7) 「選詩補註凡例」, “『選詩』云者, 梁昭明太子統所選者也. 詩自孔子刪後, 殆未易言. 然今人欲知漢魏以下諸作, 頗賴昭明此編之存, 愚故特於其中, 重加訂選, 得二百十有二首, 又常恨陶靖節詩在『文選』者甚少, 今就其本集, 增取二十九首, 又於『後漢書』得鄺炎詩二首於『文章正宗』, 得曹子建「怨歌行」一首於『阮嗣宗集』, 得「詠懷」二首, 皆『文選』所遺者, 總二百四十六首, 釐爲八卷, 其它如經史所載歌謠, 樂府集所錄古詞, 別當刪取而續傳也.”
- 8) 「選詩補遺序」, “右選詩補遺目錄上下卷, 凡四十二首, 皆古歌謠詞散見於傳記諸子之書及樂府集者也. 卓陶所賡, 五子所述, 載於經書者, 乃聖人所定, 不敢復錄, 而其它古詞之合作者, 無不載焉. 唐虞而降, 以至于晉, 懸歷二千七百餘載, 其間詞章, 不見錄於梁昭明者無限, 今所補僅止于此, 是何考擇之太謹耶?”
- 9) 「選詩續編序」, “右選詩續編目錄凡五卷 [···] 今所編, 得唐古體, 合一百餘首 [···] 唯王臨川, 問出一二, 及吾朱子, 識趣高明, 極意追復, 遺音未泯, 庶幾在茲. 至若感興諸篇, 論其詞藻, 雖未能, 超軼前古, 而所以探萬化之原, 達至理之奧, 足以垂世立教, 則又三百篇後之所絕無而僅有者, 故特置諸卷終, 是又『楚詞後語』而有「鞠歌」「擬招」之例云耳.”

2. 조선에서의 『풍아익선시』 간행

『풍아익선시』의 갑인자본으로는 명종이 1553년 10월 白光弘(1522-1556)에게 내사한 15권 10책 완질이 전남 장흥군에 전하고¹⁰⁾ 같은 시기 安方慶에게 내사한 것이 일본 蓬左文庫에 남아 있다.¹¹⁾ 본집 補註 8권, 補遺 2권, 續編 5권, 합 15권이다. 갑인자본 『선시보주』는 뒤에 정관되어, 고려대 만송문고에는 裒三益 구장의 同목판본 완질이 전한다. 백광홍에의 내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사기가 있다.¹²⁾

(嘉靖三)十二年十月 日
 (內賜弘文)正字白光弘選詩一件
 (命除謝)
 (恩)
 右承旨臣尹(手決)

이 기록을 근거로 『풍아익선시』는 가정 32년(1553, 명종8) 10월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끝에는 “正統七年六月 日印出”이라는 인출기록이 있다. 정통 7년은 1442년이며 세종24년에 해당한다. 또한 이 갑인자본 『선시보주』는 『風雅翼選詩總目』에 ‘上虞劉履坦之輯選’, ‘新安金德珪仁本校正’, ‘建陽縣知縣何景春損俸刊’이라고 되어 있어, 이 책은 劉履가 補註를 가하고 명나라 金德珪(金仁本)이 校訂한 책을 何景春이 봉급을 내어 출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何景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明實錄』 권28 正統 2年(1437) 3월 5일 기사에 “福建 建

10) 박철상, 「白光弘 內賜本 『選試』의 書誌的 의미」, 『동아시아 문화연구』 38,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2010년에 보물 제1664호로 지정되었다. 개인소장.

11)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 태학사, 2012.

12) 박철상,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는 멸실된 부분을 보충한 것임.

寧府 建陽縣 縣丞 何景春을 승진하여 本縣 知縣으로 삼는다.”¹³⁾ 기록이 있어 何景春은 1437년 3월 이후 건양현 지현을 지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곧, 이 책은 何景春이 建陽縣 知縣으로 있던 1437년 3월 이후 간행한 것을 국내에 들여와 갑인자로 간행한 것을 알 수 있다.¹⁵⁾ 다만 백광홍 내사본 『풍아이선시』는 補字가 가끔씩 보여 1442년에 인쇄된 서적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¹⁶⁾ 만송문고 소장 목판 복각본은 백광홍 내사본과 다른 판식을 가지면서 백광홍 내사본에는 없는 구두점이 添刻되어 있어, 『풍아이선시』는 조선에 들어온 이래로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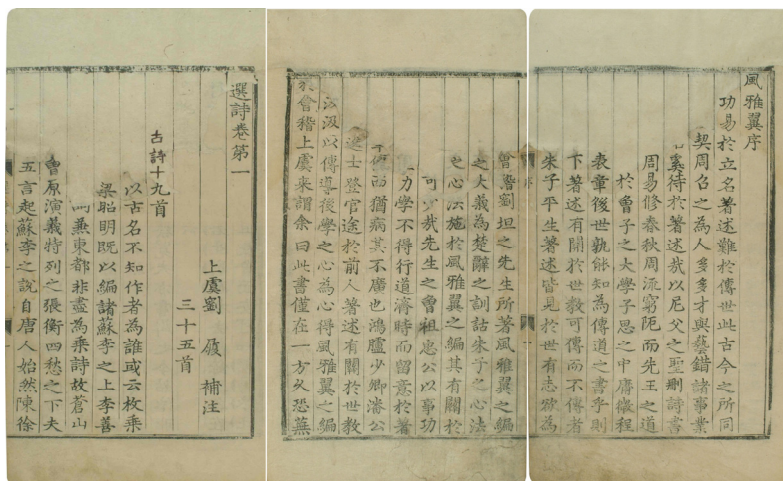


圖1> 보물 제1664호 갑인자본 『風雅翼選詩』의 黃子南 「風雅翼序」(右)와 卷首(左).

- 13) 『英宗睿皇帝實錄』 卷28 正統 2年(1437) 3月 5日 3번째 기사: “○陞福建寧府建陽縣縣丞何景春, 爲本縣知縣.”
- 14) 박철상, 앞의 논문에서 何景春을 홍치연간의 인물로 본 것은 수정이 필요할 듯하다.
- 15) “正統七年六月 日印出”의 印記를 갑인자본의 인출기로 보아야 할지, 중국본의 인출기록으로 보아야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정하기 어렵다.
- 16) 박철상, 앞의 논문.

한편 고려대 도서관 소장 裒三益 구장의 목판본 『풍아익선시』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려대본 『풍아익선시』는 『選詩補註』 8卷, 『選詩補遺』 2卷, 『選詩續編』 5卷, 총 15권 9책의 완질이다.

選詩補註 8卷 補遺2卷 續編5卷 合9冊(全)

四周雙邊 半郭 20.9 × 16.5 cm, 有界, 10行16字 小字雙行, 上下黑口, 內向黑3
葉花紋魚尾 ; 29.7 × 19.9 cm

배삼익 구장본 『풍아익선시』에는 卷首에 至正 23년(1363) 작성의 戴良 「風雅翼序」, 至正乙巳(1365) 작성의 夏時 「選詩補註序」, 至正 32년(1361) 작성의 謝肅 「選詩補註序」, 曾日章 「風雅翼序」, 黃子南 識語가 수록되어 있다. 序文에 이어 「選詩補註凡例」가 나오고 범례에 이어서 「風雅翼選詩總目」이 나온다. 首行에 ‘風雅翼選詩總目’, 次行에 低4格으로 ‘上虞劉履坦之輯選’, 第3行에 低4格으로 ‘新安金德珉仁本校正’, 第4行에 低4格으로 ‘建陽縣知縣何景春損俸刊’이라고 나오고, 이어서 목차가 이어진다. 총목에 이어 「選詩補註目錄」이 있고, 목록에 이어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은 首行에 ‘選詩卷第一’, 次行에 低8格으로 ‘上虞劉履補註’라고 되어 있다. 이어서 第3行에 低1格으로 분류목 ‘漢詩’를 표시하고, 第4行에 低2格으로 ‘古詩十九首’의 詩題를 표시하였다. 시제에 이어 低4格으로 시인의 가계와 이력 등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¹⁷⁾ 이하 平頭에서 시 본문이 이어진다. 본문에는 旁點(●), 圈(○), 抹(■) 등의 기호로 평비점을 표시하였다. 「범례」에 의하면, 시어가 精至하거나 意思가 悠遠한 곳은 ‘旁點’을, 含蓄에 餘韻이 있는 곳은 ‘圈’을, 詩意가 切要하되 詩語가 약간 晦昧한 곳이나 公교롭지 못한 곳은 ‘抹’을 표시하였다.¹⁸⁾ 또한 『용비어천가』의 예와

17) 「選詩補註凡例」, “凡詩人之家世出處, 歷仕年代, 節行封諡, 并詳考史傳, 略具始末于姓名之下, 使覽者有考焉.”

18) 「選詩補註凡例」, “語有精至, 或意思悠遠者, 從旁點識, 若含蓄有餘韻者, 圈, 意切要而語稍晦, 或未工者, 抹, 庶使學者, 或得因此而尋玩其意味也.”

마찬가지로 句讀의 표시를 하되, 구를 표시하는 讀點만을 사용하고 문장을 표시하는 句點은 사용하지 않았다. 백광홍 내사본 『풍아익선시』에는 이 구두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劉履의 주석은 시 본문 다음에 低一格으로 수록하였고 주석은 크게 圈内註와 圈内註로 나뉘어 있다. 中縫에는 ‘選詩卷一’이라고 하여 서명과 권차를 표시하고 아래에 面次를 기재하였다.



圖2> 高麗大 圖書館 所藏 『選詩補註』 黃子南 「風雅翼序」(右)와 卷首(左).

『選詩補遺』는 상하 2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 「選詩補遺目錄」이 나오고 목록에 이어서 劉履의 서문이 이어진다. 본문은 首行 ‘選詩補遺卷上’, 次行에 低7格으로 ‘上虞劉履精選’이라고 되어 있다. 第3行에 低2格으로 ‘康衢謠’라고 시제가 나오고, 다시 低2格으로 ‘新安金德瑛校正’이라고 되어 있다. 시제와 교정자가 같은 행에 나오는 것은 활자를 조판할 때의 잘못을 그대로 따른 때문인 듯하다. 『선시』와 마찬가지로 시제에 이어 低3格으로 시인의 가계와 이력 등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 이하에 平頭에서 시 본문이 이어지고 시 본문 다음에 低1格으로 劉履의 주석을 수록하였다. 版心題는 ‘選詩補遺’이고 中縫에는 판심제와 함께 ‘卷一’이라고 하여 권차를 표시하고 아래에 面次를 기재하였다.

劉履는 「選詩補遺序」에서, 風雅가 一變하여 楚辭가 되어 晦庵 朱夫子가 거기에 주석을 달았는데, 자신은 참람됨을 알지 못하고 『補註選詩』를 편찬한 뒤에 다시 이 편, 즉 『선시보유』를 집록하여, 주자가 經史諸書의 韻語와 『文選』의 古詩를 초록하여 『시경』과 『초사』의 뒤에 부록하려한 遺意를 계승하려 하였다고 하였다.¹⁹⁾



圖3> 고려대 도서관 소장 『選詩補遺』 「選詩補遺目錄」(右)과 劉履 序文 및 卷首(左).

『選詩續編』는 5권 2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 「選詩續編目錄」이 나오고 『選詩補遺』와 마찬가지로 목록에 이어서 劉履의 서문이 이어진다. 서문에 이어 胡炳文의 「感興詩通序」가 있고, 이어서 「感興詩通凡例」가 나온다. 본문은 首行 「選詩續編卷第一」, 次行에 低7格으로 「上虞劉履校選」이라고 되어 있다. 第三行에 低1格으로 「唐詩」의 분류목을 표시하고, 第4行에 低2格으로 「陳拾遺感遇詩七首」의 詩題를 표시하였다. 이하 시인

19) 「選詩補遺序」, “蓋自風雅一變而爲楚辭, 晦庵朱夫子爲之註矣。而於定著後語, 則曰, 考於詞宜益精, 擇於義當益嚴。今予不知僭妄, 既爲『補註選詩』, 而復輯是編者, 蓋亦竊承朱子, 欲抄經史諸書韻語, 『文選』古詩, 附于三百篇, 楚辭之後之遺意, 則於考擇也, 固不得不致謹而加之精嚴也已。若其微詞奧旨, 當訓釋者, 則略疏于本篇之下云。”

에 대한 인물 정보와 시본문 및 주석 사항은 『선시』 및 『선시보유』를 그대로 따랐다. 中縫에는 ‘續編卷’이라고 하여 서명과 권차를 표시하고 어미 아래에 頁次를 기재하였다.

劉履는 「選詩續編序」에서도 朱子가 일찍이 經史의 韻語와 『文選』의 古詞를 초록하고 『文選』 이후 여러 시 중에서 古에 가까운 것을 채록하여 羽翼輿衛로 삼고자 하였는데 책의 완성을 보지 못하여 후학들이 취할 바가 없으므로, 자신이 감히 참람됨을 헤아리지 않고 『選詩補註』·『補遺』를 집록하고 또 다시 이 편, 즉 『선시속편』을 편찬하여 朱子의 遺意를 이어받고자 하였다고 하였다. 「感興詩」를 권말에 둔 것 역시 주희가 『楚辭後語』의 뒤에 「鞠歌」와 「擬招」를 둔 예를 따른 것임을 밝혔다.²⁰⁾



圖4> 고려대 도서관 소장 『選詩續編』 「選詩續編目錄」(右)과 劉履 序文 및 卷首(左).

20) 「選詩續編序」, “右選詩續編目錄凡五卷, 昔者朱子嘗欲鈔經史韻語及文選古詞, 又將擇夫文選以後諸詩之近於古者, 以爲羽翼輿衛, 且曰, 其不合者悉去之, 使吾耳目胸次, 無一字世俗言語相接入, 則其爲詩, 不期於高遠而自高遠, 先正惓惓教人復古之意, 可謂至深切矣. 惜乎未覩成書, 後學無所取, 愚敢不揆僭踰, 輒爲『選詩補註』·『補遺』, 而復及是編者, 蓋亦竊承朱子之遺意也. [...] 至若感興諸篇, 論其詞藻, 雖未能, 超軼前古, 而所以探萬化之原, 達至理之奧, 足以垂世立教, 則又三百篇後之所絕無而僅有者, 故特置諸卷終, 是又『楚詞後語』而有「鞠歌」「擬招」之例云耳.”

3. 『선시보주』의 주해 방식

『풍아익선시』의 세 편은 모두 주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선시보주』는 주희 『시집전』과 『초사집주』의 방식을 채택하였다.²¹⁾ 劉履는 「選詩補註凡例」에서, 舊註에서 李善은 시가 노래한 사실에 대해 주석을 하였으나 시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석을 빠트렸고, 아들 李邕이 補附하였으나 精詳지 못하였으며, 이후 五臣이 다시 詁解를 하였으나 오류가 더욱 많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曾原一의 『選詩演義』은 대체로 梗概를 얻었으나 주석이 상세하되 艱요하지 않고 簡략하되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諸家의 설은 상호간에 得실이 있으므로 『補註』에서 그것들을 많이 채택하였다고 밝혔다.²²⁾ 그리고 詩意는 본디 時事에 관련 된 것인데 舊註는 모두 이에 대해 晦昧하여 이를 펼쳐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 史傳을 참고하여 歸趣를 發明함으로써 시인들의 用意을 드러내고자 하였다고 하였다.²³⁾ 그런데 劉履는 『보주』의 주해방식과 관련하여 「범례」에서 다음과

-
- 21) 戴良, 「風雅翼序」, “至其注釋, 亦以傳詩注楚辭者爲成法, 所謂『選詩補註』者是也。[...] 二編亦皆有注, 視『補註』差略。” 본고는 戴良이 至正 23년(1363)에 작성한 「風雅翼序」에서 “그 주석에 이르러서는 『詩集傳』과 『楚辭集註』의 주석방식을 법칙으로 하였으니 이른바 『選詩補註』가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하여 우선 『선시보주』의 주해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同서문에서 “이 두 편(『보유』와 『속편』)에도 모두 주석이 있는데, 『補註』에 비해 약간 소략합니다.”라고 하였듯이, 『보유』와 『속편』의 주해는 1) 詩體에 대한 判정이 빠져 있고 2) 권내주에서는 자훈에 대해 풀이하였지만 권외주에서는 시의 대의를 서술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집전』과 『초사집주』의 주해방식을 따랐다고는 보기 어려울 듯하다. 한편 『선시속편』 부록의 주자 「감홍시」는 호명문의 『感興詩通』에 劉履가 補註를 단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본고는 우선 『시집전』과 『선시보주』의 주해방식 및 洪諷을 비교분석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였다.”
- 22) 舊註李善釋事而遺意, 其子邕, 雖問爲補附, 而不及精詳, 五臣因其繁釀, 乃更爲詁解, 而乖謬尤多, 近世曾原, 頗得梗概, 文或詳而不要, 略而不明, 使學者無所取正. 然諸家之說, 互有得失, 故『補註』多採用之. 凡衆說同者, 則但稱舊註, 若所論特異, 則著姓名以表見也.
- 23) 詩意本有關於時事, 舊註或晦昧而不宣, 今爲考諸史傳, 發其歸趣, 然後知詩人之用意, 非徒作也.

같은 중요한 언급을 남겼다.

1. ‘補註’란 前人의 부족한 바를 보충하였다는 말이다. 大意는 朱子의 『詩集傳』에서 취하여 모범으로 삼아, 먼저 訓詁를 밝히고 이어서 作者의 旨意를 서술하였다. 간혹 先正이 이에 대해 論及한 것이 있으면 또한 부기하여, 言詞가 전달되고 義理가 밝혀져 초학자들이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⁴⁾
1. 詩에 協韻이 있으면 모두 『詩傳』과 『楚辭集註』의 예에 의거하였고, 吳才老(吳械)의 『韻補』도 아울러 참고하여 그 아래에 각각 부기하였다.²⁵⁾

劉履는 「범례」에서 ‘보주’를 작성하면서 주희 『詩集傳』의 방식을 취하였음을 밝혔다. 곧, ‘보주’는 주석을 크게 圈內註와 圈外註로 구분하여, 권내주에서 訓詁를 먼저 밝히고 이어서 권외주에서 작자의 旨意를 서술하였다. 또 『시집전』과 마찬가지로 전대의 주행에서 論及한 것이 있으면 또한 부기하여 주석을 보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協韻이란 『시경』 등의 고문에서, 이미 음가가 변하여 106운에는 맞지 않지만, 상고의 음운을 가정하여 다른 구의 운에 맞추어 음을 바꾸어 읽는 것을 말한다. 이 협운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吳械(1100경~1154)의 『韻補』에 이르러서인데, 오역의 협운설은 朱熹의 『시집전』에서 적극 채용되어 후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²⁶⁾ 劉履는 이 역시 주희 『시집전』과 『초사집주』의 예를 따라 협운의 사항을 부기하였다.

주희는 淳熙 4년(1183) 겨울 10월 戊子에 작성한 「詩經集傳序」에서 문답의 형식을 취하여 『시경』의 大義를 설명하였다. 곧, 주희는 1) 시를 짓는 이유[詩何爲而作也], 2) 시가 가르침이 되는 이유[其所以教者何也], 3)

24) 補註者, 補前人之所不足也. 大意竊取朱子『詩傳』爲法, 先明訓詁, 次述作者旨意, 間有先正論及此者, 亦附焉, 庶幾詞達而義明, 使初學易入也.

25) 詩有協韻, 并依『詩傳』及『楚辭集註』例, 仍參考吳才老『韻補』, 各附其下.

26) 노요한, 「朝鮮後期 詠史樂府의 협운 활용 양상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 57, 한국한문학회, 2015.

國風·雅·頌의 體가 같지 않은 이유[國風雅頌之體, 其不同若是何也], 4) 시를 배우는 방법[其學之也當奈何] 등의 질문을 가설하고 여기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시경』의 주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가설의 문답은 주희가 『시경』의 주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시경』의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집전』의 예로 「關雎」 제1장을 들면 다음과 같다.

關關雎【七余反】鳩, 在河之洲. 窈窕【烏了反】窈【徒了反】淑女, 君子好逑【音求】興也. 關關, 雌雄相應之和聲也. 雎鳩, 水鳥, 一名王雎. 狀類鳧鷖, 今江淮間有之. 生有定偶而不相亂, 偶常竝遊而不相狎, 故『毛傳』以爲摯而有別, 『列女傳』以爲人未嘗見其乘居而匹處者, 蓋其性然也. 河, 北方流水之通名. 洲, 水中可居之地也. 窈窕, 幽閒之意. 淑, 善也. 女者, 未嫁之稱, 蓋指文王之妃大姒爲處子時而言也. 君子則指文王也. 好, 亦善也. 逑, 匹也. 『毛傳』之摯字, 與至通, 言其情意深至也. ○興者, 先言他物, 以引起所詠之詞也. 周之文王, 生有聖德, 又得聖女妣氏, 以爲之配, 宮中之人, 於其始至, 見其有幽閒貞靜之德, 故作是詩, 言“彼關關然之雎鳩, 則相與和鳴於河洲之上矣, 此窈窕之淑女, 則豈非君子之善匹乎?” 言其相與和樂而恭敬, 亦若雎鳩之情摯而有別也. 後凡言興者, 其文意皆放此云. 漢匡衡曰: “窈窕淑女, 君子好逑, 言能致其貞淑, 不貳其操, 情欲之感, 無介乎容儀, 宴私之意, 不形乎動靜, 夫然後, 可以配至尊而爲宗廟主, 此是綱紀之首, 王教之端也.” 可謂善說詩矣.

주희는 「詩經集傳序」에서 “章句로써 綱을 삼고 訓詁로써 紀를 삼아야 한다”[章句以綱之, 訓詁以紀之]고 하였듯이, 매 편의 시를 章句로 나누고 매 장마다 주석을 가하였다. 우선 經文의 難讀字에 대해서 音註를 달았다. 그리고 주석은 크게 圈內註와 圈外註로 구분하여 권내주에서는 먼저 “興也”라고 하여 賦比興의 詩體를 판정하였다. 이어서 “關關”부터 “言其情意深至也”까지는 난해한 語彙, 典故, 地名 등을 풀이하였다.

권내주가 글자의 訓詁에 관한 것이라면 권외주는 시의 의미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興者, 先言他物, 以引起所詠之詞也.”는 『시집전』에서

‘興’의 概念이 맨 먼저 나온 곳이므로 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어서 “周之文王”부터 “故作是詩”까지는 시를 짓게 된 이유를 구체적 사실을 들어 서술하였다. 이어서 ‘言’ 이하 “彼關關然之雎鳩”부터 “豈非君子之善匹乎?”는 간결한 原詩의 언어를 부연하여 시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어서 ‘言’ 이하 “其相與和樂而恭敬”부터 “其文意皆放此云”는 시의 주제를 다시 확정하면서 ‘興’의 개념이 시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다시 漢匡衡의 말을 인용하여 시의 대의를 다시 한 번 풀이하였다. 각 章句에 대한 註解를 마친 후에는 “關雎三章，一章四句，二章章八句”와 같이 章句의 구성을 밝힌 후 필요에 따라 시의 의의, 교훈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술하였다.

關雎	詩集傳
關關雎鳩，在河之洲。 窈窕淑女，君子好逑。	彼關關然之雎鳩，則相與和鳴於河洲之上矣， 此窈窕之淑女，則豈非君子之善匹乎？ 言其相與和樂而恭敬，亦若雎鳩之情摯而有別也。

『시집전』은 「관저」편이 周 文王이 聖女 妣氏를 王妃로 맞이할 때 宮中의 사람이 文王妃의 幽閑貞靜한 덕을 보고서 이 시를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시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關關’은 ‘關關然’을 풀이하여 ‘關關’은 의성어임을 보였다. ‘在河之洲’는 ‘則相與和鳴於河洲之上矣’라고 부연하였다. 곧, 雎鳩가 단순히 河之洲에 있는 것이 아니라 ‘相與和鳴’하면서 河之洲에 있는 것이라고 부연함으로써 시인이 興을 일으킨 구체적 이유를 밝힘과 동시에 시의 주제-교훈을 선명히 드러내었다. 이어서 ‘窈窕淑女’는 ‘此窈窕之淑女’라고 풀이하여 ‘淑女’란 일반 명사가 아니라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말임을 분명히 하였다. ‘君子好逑’는 ‘則豈非君子之善匹乎’라고 풀이하여 찬미의 뜻을 더욱 부각시켰다. 요컨대, 『시집전』은 1) 시인이 말하려는 내용을 선명히 하고, 2) 주제-교훈을 부각시키며, 3) 賦比興 등 詩體의 관정 이유를 說破하였다. 시가 興인 경우는 起興의 과정을, 비인 경우는 比喻의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賦인 경우는 시가 노래하고 있

는 대상 사실을 각각 부연 설명하였다. 이상은 주희가 『詩經集傳序』에서 언급한 『시경』의 주요 문제와도 일치한다.

『선시보주』는 「古詩十九首」로 시작한다. 『보주』는 『문선』이 시를 주제별로 분류한 것을 시대순으로 개편하여 인물별로 배열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인이 등장할 때에는 시인의 가계와 이력 등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 「고시십구수」의 경우는 작자미상이므로 시인에 대해 약술하는 대신 「고시십구수」의 개념과 유래에 대해 간략히 고증해 두었다.²⁷⁾ 이어서 시본문이 시작된다. 「고시십구수」 중 「行行重行行」에 대한 『풍아익선시』의 주석과 原詩와 함께 들면 아래와 같다.

行行重【去聲】行行，與君生別離。相去萬餘里，各在天一涯【音宜】。道路阻且長，會面安可知。胡馬依北風，越鳥巢南枝。相去日已遠，衣帶日已緩【叶火遠反】。浮雲蔽白日，遊子不顧返。思君令人老，歲月忽已晚。棄捐勿復【扶又反】道【去聲】，努力加餐飯【如字。叶父遠反】。

此於六義爲賦中有比也。行行，行而不已也。重，再也。生別離者，言人情之至切也。『楚詞』云：“悲莫悲兮生別離。”蘇子卿亦曰：“淚爲生別滋。”涯，畔。道，言也。○賢者不得於君，退處遐遠，思而不忍忘，故作是詩。言初離君側之時，已有生別之悲矣。至於萬里道阻，會面無期，比之物生異方，各隨所處，又安得不思慕之乎？夫以相去日遠，相思愈瘦，而遊子所以不復顧念還返者，第以陰邪之臣，上蔽於君，使賢路不，通猶浮雲之蔽白日也。然我之思君，不置其底于老，宜如何哉？惟自遺釋，努力加餐而已。蓋亦卷耳酌金盃不永懷之意，觀其見棄如此，而但歸咎於讒佞，曾無一語怨及其，君忠厚之至也。

『보주』는 시본문에 성조, 협운, 파독 등 音註의 사항을 글자마다 부기

27) 詩以古名，不知作者爲誰。或云枚乘，而梁昭明，既以編諸蘇李之上，李善謂其詞兼東都，非盡爲乘詩，故蒼山曾原『演義』，特列之張衡「四愁」之下。夫五言起蘇李之說，自唐人始，然陳徐陵集『玉臺新詠』，分西北有高樓以下，至「生年不滿百」，凡九首爲乘作，而「上東門」·「宛洛」等語，皆不在其中，仍以「冉冉孤生竹」及前後諸篇，別自爲古詩。蓋十九首，本非一人之詞，徐或得其實者也。蔡寬夫，亦嘗辯之，今姑依昭明編次云。

해 두었다. 이는 중국본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²⁸⁾ 補註는 詩本文이 끝나고 이어지며 『시집전』과 마찬가지로 권내주와 권외주를 나누어 주해를 하였다. 보주는 먼저 賦比興의 詩體를 판정하였다. 이어서 권내주의 ‘行行’부터 ‘言也’까지는 난해한 어휘, 전고, 지명 등을 풀이하였고 권외주에서는 『시집전』과 마찬가지로 시를 짓게 된 동기, 시구의 의미 등을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곧 “賢者不得於君, 退處遐遠, 思而不忍忘, 故作是詩.”는 시를 지은 이유이고 ‘言’이하 ‘初離君側之時’부터 ‘君忠厚之至也’는 시의 의미를 부연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보주』는 시 본문의 주해에 있어서 『시집전』과 같이 시의 어구를 부연하여 주제를 부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詩想의 흐름을 따라가며 詩語에 나타난 시인의 심리를 읽어내고자 하였다.

行行重行行	補註
行行重行行,	初離君側之時,
與君生別離.	已有生別之悲矣.
相去萬餘里,	
各在天一涯.	至於萬里道阻,
道路阻且長,	
會面安可知.	會面無期,
胡馬依北風,	比之物生異方, 各隨所處,
越鳥巢南枝.	又安得不思慕之乎?
相去日已遠,	夫以相去日遠,
衣帶日已緩.	相思愈瘦, 而遊子所以不復顧念還返者,
浮雲蔽白日,	第以陰邪之臣, 上蔽於君, 使賢路不通,
遊子不顧返.	猶浮雲之蔽白日也.
思君令人老,	然我之思君不置, 甚底于老,
歲月忽已晚.	宜如何哉?
棄捐勿復道,	惟自遺釋,
努力加餐飯.	努力加餐而已.

28) 일본 내각문고 소장 명 가정31년(1552) 간본, 미국 하버드대학 하버드-엔칭 도서관 소장 명 가정-만력 추정 간본에도 음주가 그대로 첩입되어 있다.

처음 군주의 곁을 떠났을 때 이미 생이별의 슬픔이 있었는데 만리 바깥에서 길은 험준하고 다시 만날 기약이 없어, 비유하자면 생물이 각기 다른 곳에 태어나 각각 그 처한 곳에 따라 사는 것과 같게 되었으니, 또 어찌 사모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릇 서로 떨어진 날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움에 더욱 수척하게 되어 나그네는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데, 다만 사악한 신하가 위에서 군주를 가려 賢臣의 등용 길을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치 뜯구름이 백일을 가리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나는 군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만두지 못하여 심지어 늙을 지경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다만 스스로 마음을 풀고서 힘써 밥이나 더 먹을 수밖에 없다.

『보주』는 逐句하여 매구를 부연한 『시집전』과는 달리 시인의 심리 변화에 따른 시상의 큰 흐름 파악에 주안을 두되, 시인의 마음으로 비추어 시상의 흐름을 해설하고자 하였다. 곧, 간략한 원시에 문장성분을 적절히 보태어 시구 자체를 충실히 부연하는 데 주안을 둔 『시집전』의 방식을 따르기 보다는 해설자 자신이 시인의 입장이 되어 시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시구에 나타난 시인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行行重行行，與君生別離。”를 “初離君側之時，已有生別之悲矣.”라고 풀이하여 시에는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않은 시인의 슬픔[悲]을 끄집어내었고 “相去萬餘里 […] 越鳥巢南枝.”에서도 역시 “至於萬里道阻，會面無期，比之物生異方，各隨所處，又安得不思慕之乎?”라고 하여 시어 자체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군주에 대한 시인의 思慕의 정을 당연의 논리로서 드러내었다. “思君令人老，歲月忽已晚。棄捐勿復道，努力加餐飯.”의 경우 시 본문에는 없는 “宜如何哉?”를 주석에 넣음으로써 다소 시상의 연결이 꺾기러운 두 연 사이에 논리적 가교를 놓는 한편, “棄捐勿復道，努力加餐飯.”은 군주에 대한 권유의 말이 아니라 시인 자신의 다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문선』의 주석에서 呂延濟가 “努力加餐飯，自勉之辭”라고 주석한 것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적시하기 보다는 “宜如何哉?”의 自問을 두 연 사이에 넣음으로써 두 연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棄捐勿復道，

努力加餐飯.”은 자문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임을 독자로 하여금 저절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시 주해에 있어서 시인의 말을 통해 시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방식은 虞集 『杜律虞註』의 주해에서도 두드러지게 보이는 방식이며,²⁹⁾ 이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 劉辰翁의 시 비평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須溪 劉辰翁(1232-1297)은 南宋의 遺民, 宋末의 愛國詞人, 혹은 당대를 대표하는 평점가로서 알려져 있다. 남송 멸망 후 본격적으로 평점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가 평점을 남긴 시인은 두보, 이백, 맹호연, 왕유, 위응물, 소식, 이하 등 58명에 이른다.³⁰⁾ 程鋸夫는 「嚴元德詩序」(『程鋸夫集』)에서 유진옹 평점의 특징에 대해 자신을 작자와 중첩시켜 작품을 읽는 ‘작자와의 同化’의 태도를 들었다.

會孟(유진옹의 字)은 古人의 작품에 있어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은 마을에 살고 같은 도를 배우며 같은 조정에서 벼슬하는 듯이 하여, 그 마음과 웃는 모습, 依微하게 俯仰함이 千態萬象이었다. 말을 하면 비슷하지 않은 것이 없고 비슷함은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시 비평은 작자의 用意보다 지나친다.”라고 하였다. 때문에 會孟의 시 담론에 미친 자가 근세에 드물었다.³¹⁾

유진옹의 문학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 속에 들어 있는 ‘情’을

29) 魯耀翰, 「白川先生の興研究と『杜律虞註』の興説について」, 『立命館白川靜記念東洋文字文化研究所紀要』 第10號, 立命館白川靜記念東洋文字文化研究所, 2017.

30) 孟浩然, 王維, 杜甫, 韋應物, 孟郊, 李賀, 王安石, 蘇軾, 陳與義, 陸游, 汪元量的 경우 별집의 형태로 현재까지 전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선집에 채록되어 일부가 전한다. 또한 시집 이외에 『班馬異同』·『越絕書』·『山海經』·『戰國策』·『陰符經』·『老子道德經』·『列子冲虛真真經』·『莊子南華真經』·『世說新語』 등에 대해서도 평점 혹은 校訂을 남겼다. 이하 유진옹 평점에 대해서는 奥野新太郎, 『劉辰翁研究: 宋元交替期の活動を中心に』, 九州大學博士論文, 2014. 참조.

31) 會孟於古人之作, 若生同時, 居同鄉, 學同道, 仕同朝, 其心情笑貌, 依微俯仰, 千態萬象, 言無不似, 似無不極. 其言曰: “吾之評詩, 過於作者用意.” 故會孟談詩, 近世鮮能及之.

중시하는 자세이다. 이때 ‘정’이란 작품 속의 詩句나 文字의 배경에 있는 작자 자신 혹은 작중 인물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한다. 유진웅은 때로 시의 한 글자에 대해 작자가 이 글자를 사용한 의도와 그 글자에 들어가 있는 작자의 심정에 대해 깊은 분석을 가하기도 하였다. ‘정’은 유진웅이 작품을 해석할 때 무엇보다도 중시한 것이었다.³²⁾ 이후 원대의 문학은 ‘정’을 중시하여, 唐詩의 서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주희 『시집전』의 주해방식을 모범으로 하면서도 시인의 감정을 중시한 『풍아익선시』와 『두울우주』의 주해 방식 역시 이러한 문학관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것이며, 『풍아익선시』와 『두울우주』에 유진웅의 평비점이 첨입되어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유진웅 평점본은 조선 전기 南孝溫(1454~1492)의 『秋江冷話』에도 언급이 있고³³⁾ 조선 중기 張維(1587~1638)의 『谿谷漫筆』에서도 거론될 만큼³⁴⁾ 조선의 문단에도 오랜 기간 큰 영향을 끼쳤다. 李仁榮 『淸芬室書目』은 수계본으로 『須溪校本陶淵明詩集』(목판본 2종), 『須溪先生校本韋蘇州集』, 『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목판본 1종, 활자본 1종), 『須溪先生評點簡齋詩集』(목판본 1종, 활자본 1종), 『名公妙選陸放翁詩集後集』, 『纂註分類杜詩』(활자본, 수계 비점은 미언급), 『王荊文公詩』(활자본 2종) 등 모두 11종을 저록하고 있다.

32) 奥野新太郎, 앞의 논문.

33) 南孝溫, 『秋江集』 권7 雜著 「冷話」, “積城之青鶴洞在紺岳山, 洞口有一溪回互曲折. 余嘗訪詩僧於雲溪寺, 匹馬一囊, 窮源討幽, 方渡一溪十二, 然後至其麓. 後讀杜詩山行一溪水, 曲折方屢渡, 正與曩日所見無異, 風簷展書, 如對青鶴. 然不知劉須溪何人也, 以一字爲可笑, 何耶? 愚竊疑必下一字, 然後於下句屢渡字 尤有味也.”

34) 張維, 『谿谷漫筆』 권1 「詩之眞情實境」, “韋應物有贈楊開府詩, 自陳少時任俠跌宕之事, 詞韻深妙, 此蓋自述實狀, 而楊開府必其俠遊時舊伴也. 劉須溪批此詩以爲, 世言蘇州所至掃地, 焚香而坐, 不應爲人老少頓異, 此寓言, 非自謂也.”

4. 『선시보주』의 興說

『선시보주』는 「古詩十九首」의 「行行重行行」에 대해 ‘賦中有比’라고 詩體를 판정하였다. 곧, 이 시는 군주의 곁을 떠난 시인 자신의 그리운 마음을 서술한 것이므로 六義 중에 賦에 해당하며, 또 군주와 시인 자신의 상황을 胡馬와 越鳥에 비유하였으므로, ‘賦中有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주』는 이와 같이 『시집전』의 예를 따라 모든 수록 작품에 대해 賦比興의 詩體를 판정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시집전』의 賦比興 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이하, 興說을 중심으로 『선시보주』의 詩體說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집전』은 매 시편의 주석을 부비홍의 시체를 판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白川靜은 주희의 홍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³⁵⁾

1. 託興의 뜻을 下句에서 說破하는 것은 興이다.
2. 탁흥의 辭는 대부분 實事實景으로, 시인이 보는 바에 따라 興을 일으킨 것이다. 가공의 사실이나 정경을 설정한 허구의 구는 비이다.
3. 탁흥의 뜻을 취하고 上句와 下句의 형식이 대응하는 것은 興이다.
4. 탁흥의 뜻을 취하지 않더라도 上句와 下句의 형식이 대응하는 것은 興이다.

1과 2에 대해 「關雎」를 예로 들어 말하면, 『집주』에서 “彼關關然之雎鳩, 則相與和鳴於河洲之上矣, 此窈窕之淑女, 則豈非君子之善匹乎? 言其相與和樂而恭敬, 亦若雎鳩之情摯而有別也.”라고 하였다. 雎鳩의 ‘情摯而有別’이라는 습성이 ‘和樂而恭敬’한 숙녀를 연상시킨 것이다. 곧, 시인은 정이 두텁고 남녀의 구별이 있는 雎鳩를 보고서 화락하고 공경스러운 숙녀를 우연히 연상하였을 뿐 起興의 辭는 이 이상으로 주제와 관련이 없다.

주희는 興을 논하면서 比를 함께 거론한 경우가 많은데, 흥과 비는 說

35) 이하 朱熹의 興說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白川靜, 『興の研究』, 『白川靜著作集』 9, 平凡社, 2000.

破와 不說破로 구별된다. 곧, 興體에서 起興의 辭와 主文과의 관계는 說破에 의해 비로소 분명해진다. 「관저」의 경우 상 2구는 ‘窈窕’로 시작하는 하 2구에 의해 설파됨으로써 비로서 起興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비는 比況하는 바가 분명하여 흥체와 같이 상구의 실사를 하구에서 설파함이 없다. 예를 들어 「蠡斯」는 『집주』에서 “后妃不妬忌而子孫衆多，故衆妾以蠡斯之群處和集而子孫衆多比之”라고 하여, 후비가 질투하지 않아 자손이 많았으므로 여러 첩들이 이를 종사가 모여 살면서 화합하여 자손이 많은 것으로 비유하여 노래한 것으로 보아 비라고 판정하였다. 여기에서 ‘比顯興隱’의 평가가 나오게 되었다. 주희는 주로 說破·不說破의 기준으로 興과 比를 분명히 구별하고 이를 『시경』 전체의 시에 적용하였다.

3과 4에 대해서 「王風·揚之水」의 예를 들면 “揚之水，不流束薪。彼其之子，不與我戍申。”에 대해 『집주』는 興이라고 판정하면서 “興取之不二字，如小星之例.”라고 하였다. 「召南·小星」의 “嘒彼小星，三五在東。肅肅宵征，夙夜在公。寔命不同.”의 경우에도 이를 興이라고 판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因所見以起興，其於義無所取，特取在東在公兩字之相應耳.”라고 하였다. 곧, 『집주』는 뜻을 취하지 않더라도 上句와 下句의 형식이 대응하는 것 역시 興體라고 본 것이다. 이것은 뜻을 취한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의 흥설은 다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前辭가 뜻을 취하면서 주제에 관여하는 경우는 主文에서 前辭의 비유성이 설파된다.
2. 前辭가 뜻을 취하지 않으면서 주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리듬·어법의 대응을 취한다.

나아가 주희는 흥체의 시에 대해 단지 흥인 경우와 함께 ‘興而比’, ‘比而興’, ‘賦而興’, ‘賦而興而比’, ‘賦其事以起興’ 등을 들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선시보주』는 『시집전』을 모범으로 하여 모든 작품

에 대해 賦比興의 시체를 판정하였다. 그렇다면 부비홍의 시체설 역시 『시집전』의 설을 그대로 따른 것일까? 「行行重行行」에 이어서 등장하는 「青青河畔草」에 대해 『풍아익선시』는 “興而比也”라고 시체를 판정하였다. 「青青河畔草」의 原詩와 補註는 다음과 같다.

青青河畔草 【叶此苟反】，鬱鬱園中柳。盈盈樓上女，皎皎當窗牖。娥娥紅粉粧，
織織出素手。昔爲倡家女，今爲蕩子婦。蕩子行不歸，空牀難獨守。

興而比也。鬱，通作苑，茂也。『詩』云：“苑彼柳斯。”盈盈，姿容充滿貌。當，出，皆自呈露之意。牖，穿壁取明之交樞窓也。娥娥，美好也。倡，女樂也。蕩子，『列子』所謂去鄉土遊四方而不歸者，世謂狂蕩之人，是也。○曾原謂：“此詩刺輕於仕進而不能守節者。”得之。言，青青之草，鬱鬱之柳，其枝葉非不茂也。然無貞堅之操，一至歲寒，則衰落而不自保，以興世俗輕進之人，自銜以求寒。其才質非不美也。然素無學識，不知自修之道，一遭困窮，則放濫無恥，而欲其固守也難矣。且不斥言之而婉其詞，以倡女爲比，其深得詩人託諷之義歟!

과룩과룩한 풀과 울창한 버드나무는 그 가지와 잎이 무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소나무와 같은 貞堅의 지조가 없어, 한번 차가운 날씨에 이르게 되면 쇠락하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 세상에서 가볍게 벼슬에 나아가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뺏내며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팔리기를 원한다. 그들의 재주나 자질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디 학식이 없고 自修의 도를 알지 못하여, 한 번 곤궁함을 당하면 放濫無恥하여 자신을 굳게 지키려 하여도 쉽지 않다. 곧 『보주』는 풀과 버드나무의 ‘無貞堅之操’라는 습성에 의해 ‘素無學識，不知自修之道’의 ‘世俗輕進之人’ 곧 ‘蕩子’가引起되는 것이라고 보아 이 시의 시체를 興이라고 판정하였다.

한편 『보주』는 이 시가 斥言하지 않고서 말을 완곡하게 하여 倡女로써 비유하여, 시인이 託諷하는 뜻을 깊이 얻었다고 상찬하였다. 곧, 풀과 버드나무는 ‘無貞堅之操’의 ‘蕩子’를 연상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조가 없는 ‘倡家女’를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

주』는 최종적으로 이 시의 시체를 興이면서 比라고 판정하였다.³⁶⁾

한편, 『杜律虞註』 역시 일부 작품에 한정하여 賦比興의 시체를 판정하였다. 율시의 경우 대개 8구 4연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頷聯과 頸聯은 반드시 對仗을 지켜야 한다. 거기에 ‘景’과 ‘情’을 어떻게 조직해 넣는가 하는 것이 전체 시의 골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³⁷⁾ 『杜律虞註』는 대체로 율시를 前4句와 後4句로 크게 나누고 ‘景’을 서술한 前4句가 後4句에 서술된 ‘情’을 불러일으킨 경우 이를 興이라고 판정하였다. 하지만 「고시 십구수」와 같이 고체시의 경우 先景後情과 같은 율시의 결구 방식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주』는 시를 전체적으로 보아 비유나 탁흥의 말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시체를 판정하였다.

이어지는 「青青陵上柏」에 대해 『보주』는 흥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青青陵上柏」의 原詩와 補註는 다음과 같다.

青青陵上柏【叶卜各反】，磊磊澗中石【叶實若反】。人生天地間，忽如遠行客【叶克各反】。斗酒相娛樂，聊厚不爲薄【叶迫各反】。驅車策駑馬，游戲宛【於元反】與洛。洛中何鬱鬱，冠帶自相索【色窄反，叶昔各反】。長衢羅夾巷，王侯多第宅【叶達各反】。兩宮遙相望，雙闕百餘尺【叶敕畧反】。極宴娛心意，戚戚何所迫【叶卜各反】。

興也。大阜曰陵。磊磊，石衆大貌。聊，粗畧之詞。駑，馬之遲鈍者。宛，漢縣名，屬南陽郡，卽今南陽府也。洛，洛陽，東都也。鬱鬱，氣盛貌。索，求訪也。通道四通謂之衢。羅，網布之義。巷，衢中相通之別道。第者，王侯之居，有甲乙次第也。兩宮，蔡質「漢官典職」云：“南宮北宮，相去七里。”是也。闕，門觀也。詳見崔豹『古今注』。○人有見陵上之柏，閱歲不凋，澗中之石，堅貞不朽，而人生寄世，忽如行客遠去，乃不若二者之長存。於是感物興懷，欲以斗酒宴樂，聊且相厚，而不至於薄也。故又言出遊宛洛之間，觀夫王侯第宅宮闕之盛，而冠帶之人，自相求索，極宴

36) 다만, 朱熹가 말한 ‘興而比’란 上四句興體, 下四句比體인 것을 의미하며, 1章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사를 並舉하고 있는 것으로, 興·比의 두 가지가 관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다. 白川靜, 『興の研究』, 『白川靜著作集』 9, 平凡社, 2000, pp.256-257.

37) 심경호,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6, pp.55-56.

以爲樂, 則人之不能自娛, 而常戚戚憂慮者, 何所驅迫而然乎? 盖感歎至此, 則意愈切矣. 然彼之極宴, 豈不過於奢靡, 而我之斗酒相厚, 殆不失性情之正者歟!

언덕 위의 측백나무는 해가 지나도 시들지 않고 계곡의 바위는 견고하여 썩는 법이 없는데, 사람으로 태어나 세상에 부쳐 살면서는 홀연 나그네가 되어 멀리 떠나게도 되니, 이는 측백나무와 바위가 길이 스스로를 보존하는 것만도 못하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한 말 술로 즐기면서 조금 이나마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각박하게 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말하였다. 宛縣과 洛陽의 사이에 노닐며 왕후의 저택과 궁궐의 성대함을 보면 冠帶를 한 사람들이 서로를 구하여 성대히 연회를 열고서 즐거움을 다한다. 그런데 스스로 즐기지 못하면서 항상 戚戚히 근심하는 사람은 무엇에 그리 쫓기어 그런 것인가? 대개 느끼어 탄식함이 이에 미치자 마음이 더욱 절박해졌다. 하지만 저들의 성대한 연회는 사치에 불과하며 한 말 술로 스스로를 넉넉하게 하는 것은 성정의 올바름을 잃지 않은 것이리라!

『보주』는 측백나무의 ‘閔歲不凋’과 바위의 ‘堅貞不朽’이라는 습성에 의해 ‘不若二者之長存’의 ‘行客’이 연상된다고 보아 이 시의 시체를 홍이라고 판정하였다.

이하 수록 작품들을 살펴보면 『선시보주』는 대부분의 작품을 비 혹은 부의 시체에 해당시키고 있음을 수 있다. 비는 比況 혹은 비유를 부는 사실의 서술을 말한다. 하지만 이상의 경우와 같이 前辭가 뜻을 취함으로써 주제에 관여하여 主文에서 前辭의 비유성이 설파될 경우에는 홍체로 판정하였다. 곧 『보주』의 홍설은 『시집전』의 홍설을 대체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上下句의 형식이 대응하여, 곧 상하구 리듬·어법의 대응을 취하여 홍이라고 판정한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다.

5. 앞으로의 과제: 마무리를 대신하여

이상 본고는 『풍아익선시』의 간행사실을 개괄하고 『풍아익선시』가

주해서로서 가지는 특징을 『선시보주』에 나타난 주해방식과 홍설을 통해 살펴보았다. 『풍아익선시』는 안평대군이 편찬한 『八家詩選』에 쓴 성삼문의 「八家詩選序」에 “고시는 劉履의 『選詩』를 세상의 학자들이 종주로 삼아 높인다.”³⁸⁾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문인들 사이에서 두루 읽혔던 시선집이었므로, 시상의 큰 흐름을 따라가며 시어에 나타난 시인의 심리를 읽어 내는 주해 방식과 주희 『시집전』을 따른 홍설은 조선전기 중국시의 이해와 시학의 부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된다. 『풍아익선시』의 간행이 조선전기 한시사의 전개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그밖에 『풍아익선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1) 評批點의 添入

앞서 언급하였듯이 『풍아익선시』는 본문에 旁點(●), 圈(○), 抹(■) 등의 기호로 평비점을 표시하였으며, 이는 조선전기 문인들이 수록 시문을 이해하는 데 크게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풍아익선시』는 시어가 정밀하거나 意思가 悠遠한 곳은 ‘旁點’, 함축적이어서 여운이 있는 곳은 ‘圈’, 詩意가 艱澁하되 의미 전달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措字가 公교롭지 못한 곳은 ‘抹’을 각각 표시하였다.³⁹⁾

『풍아익선시』 이외에도 조선전기에는 曾原一 『選詩演義』, 劉辰翁 批點의 여러 시문집 등 평비점을 添入한 시문집 및 시문선집을 간행하여 한문 고전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세종 때 안평대군과 집현전 학사들은 『纂註分類杜詩』를 엮을 때 元나라 高楚芳 編 『集千家批點補遺

38) 成三問, 「八家詩選序」, 『東文選』 卷94 序, “古詩, 則劉履之『選詩』, 世之學者, 亦知宗而尊之矣.”

39) 「選詩補註凡例」, “語有精至, 或意思悠遠者, 從旁點識, 若含蓄有餘韻者, 圈, 意切要而語稍晦, 或未工者, 抹, 庶使學者, 或得因此而尋玩其意味也.”

杜工部詩集』으로부터 劉辰翁의 비점을 옮겨다가 添入하였고,⁴⁰⁾ 시학의 진작을 위해 『須溪校本陶淵明詩集』, 『須溪先生評點簡齋詩集』, 『王荊文公詩集』, 『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 등 여러 종의 ‘須溪批點本’을 개간하거나 복간하였다. 『풍아익선시』를 비롯하여 이들 평점본 텍스트가 조선전기 사대부 문인들의 시문 학습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2) 陶淵明詩의 채록

『풍아익선시』는 『문선』에서 212수를 선별하여 수록한 이외에 추가로 『문선』에서 누락된 陶淵明의 시 29수, 鄺炎의 시 2수, 曹子建의 「怨歌行」 1수, 完적의 「詠懷」 2수를 문집 등의 자료에서 각각 채록하여, 모두 246수의 시를 수록하였다.⁴¹⁾ 곧 『풍아익선시』는 도연명 시가 『문선』에 수록된 것이 너무 적은 것을 안타깝게 여겨 도연명의 문집에서 29수를 추가로 취하여 수록하였으며, 모두 37수의 도연명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고문진보』는 물론 『문선』, 『선시연의』보다 많은 도연명의 시를 수록하고 있어, 조선전기에 간행한 시문 선집으로서는 49수를 수록한 陳德秀 『文章正宗』 다음으로 도연명의 시를 많이 수록한 것이 된다. 『풍아익선시』 수록의 도연명시 목록은 다음과 같다.

40) 심경호,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1999.

41) 「選詩補註凡例」, “『選詩』云者, 梁昭明太子統所選者也. 詩自孔子刪後, 殆未易言. 然今人欲知漢魏以下諸作, 頗賴昭明此編之存, 愚故特於其中, 重加訂選, 得二百十有二首, 又常恨陶靖節詩在『文選』者甚少, 今就其本集, 增取二十九首, 又於『後漢書』得鄺炎詩二首, 於『文章正宗』得曹子建「怨歌行」一首, 於『阮嗣宗集』得「詠懷」二首, 皆『文選』所遺者, 總二百四十六首, 釐爲八卷, 其它如經史所載歌謠, 樂府集所錄古詞, 別當刪取而續傳也.”

卷之五

晉詩三 三十七首

陶淵明

停雲, 榮木(并四言), 九日間居, 歸田園居三首, 移居二首, 和劉柴桑, 和郭主簿, 贈羊長史, 歲暮和張常侍, 始作鎮軍參軍, 懷古田舍, 西田獲早稻, 飲酒十首, 擬古五首, 雜詩二首, 詠貧士, 詠荊軻, 讀山海經, 桃源詩, 挽歌詩

조선에서 간행된 도연명 시문집의 이른 판본으로는 성종 14년(1483)에 晉州에 간행의 목판본 『須溪校本陶淵明詩集』이 있어, 서울대 규장각, 충남대 도서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등에 전한다. 모두 유진용의 비점이添刻되어 있다.⁴²⁾ 『청분실서목』에는 『須溪校本陶淵明詩集』의 목판본 1종 외에 서문 1장과 발문 2장이 결락된 같은 판본의 책이 1종 더 수록되어 있다.⁴³⁾

그런데 이 『수계교본도연명시집』은 시집 위주여서 도연명의 산문작품은 「도화원기」, 「귀거래사」 등 대표적인 작품들만을 수록한 것이었다. 이후 朴祥은 진주에서 간행한 수계본이 문집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록된 작품에도 闕失이 있다고 하여 李夢陽이 교정한 시문집을 저본으로 1522년에 忠州에서 『陶淵明集』을 새로 간행하였다.⁴⁴⁾ 충남대 도서관, 미국 하버드대 하버드-옌칭도서관, 일본 內閣文庫 등에 소장되어 있다.⁴⁵⁾ 그런데 이몽양은 「刻陶淵明集序」에서 도연명 문집의 간행 시에는 반드시 주석과 평어를 제거하라고 한 언급이 있으며⁴⁶⁾ 실제로 『도연명집』

42) 조선본 도연명집의 전반적인 간행 사실에 대해서는 황선주(2012)에서 개괄한 바 있다.

43) 충남대 도서관 소장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2卷1冊: 四周單邊, 半郭 19.2 × 12.8 cm, 有界, 半葉 10行 16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29.2 × 18.3 cm.

44) 朴祥, 「新刊陶靖節先生詩文集跋」, “右靖節先生詩集. 康州須溪本, 不但文集之不具, 而其所載且有闕失, 是豈陶氏之全書耶? 余嘗得國朝李夢陽所校定詩文兩帙, 盥手百遍, 先生平生製作, 未必止此, 而亦可以見其大略矣, 圖壽傳於東夏, 蓋有年矣.”

45) 충남대 도서관 소장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零5卷2冊: 四周單邊, 半郭 23.0 × 15.0 cm, 有界, 半葉 10行 20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2.0 × 19.1 cm.

은 평점과 주석 없이 간행되었다.

1583년에는 경연에서의 교재를 위해 선조의 명으로 『箋註靖節先生集』을 재주갑인자로 간행하였다. 鄭惟吉은 발문에서 도연명의 시문이 文治에 도움이 되고 世教에 관련된 것이므로 선조의 명에 의해 특별히 간행한다고 하였다.⁴⁷⁾ 이 책은 元代的 통행본인 이공환본을 복간한 것으로, 이공환의 주석과 역대 제가의 비평이 수록되어 있으며, 중국의 이공환본에는 없는 도연명의 연보도 별도로 부록으로 첨가되었다.⁴⁸⁾ 고려대 晩松文庫,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서울대 奎章閣 등에 소장되어 있다.⁴⁹⁾

조선 전기에 유통된 도연명의 시집으로는 목판본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가 있어 고려대 도서관에 전한다. 그런데 이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는 도연명 문집 못지않게 조선 전기 문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 전기 특히 15세기에 이르면 金宗直(1431-1492)의 『和淵明述酒』, 金時習(1435-1493)의 和陶詩 66수, 南孝溫(1454-1492)의 『自挽四章』 등을 대표로 양과 질에서 현저한 도연명 시 계승 양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역시 『화도시화』에서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⁰⁾

이상 언급된 도연명 시문집과 『화도시화』를 제외하면 『풍아익선시』는 『문장정중』과 더불어 가장 많은 수의 도연명의 시를 수록하고 있으며, 뿐

46) 李夢陽, 「刻陶淵明集序」, “予曰: ‘必去其評與注焉. 夫青黃者, 木災也. 太羹之味, 豈群口所適哉? 夫陶子, 知其人者鮮矣. 矧惟詩? 朱子曰: 『詠荊軻詩, 淵明露出本相。』 知淵明者, 朱子耳。”

47) 鄭惟吉, 「靖節先生集跋」, “古之文章之士, 有集之傳于世尚矣. 然不過騁詞藻工雕琢, 取悅於一時, 流名於後代而已, 至於性情之真, 出處之正, 馥郁於簡編昭晰於宇宙, 使讀之者, 惕然起敬於千百載之下者, 其惟靖節集乎! 恭惟主上殿下, 聰明冠古緝編加功, 其於朝夕經筵, 講論經史, 沈潛反覆之外, 凡諸子百家之粹駁異同, 靡不旁搜遠覽, 有可以補文治關世教者, 率皆涇渭於睿鑑. 於是乎, 特舉是帙, 令儒臣參定, 而命有司監印, 命圖書署別提金提圖其迹, 又命臣惟吉題其卷後.”

48) 황선주, 「한국본 도연명집의 서지적 연구」, 『과학과 문화』 제9권 1호,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소, 2012.

49)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10卷2冊(全) : 圖, 四周雙邊半郭 26.2 × 16.8 cm, 有界, 10行18字 小字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 34.7 × 21.6 cm.

50) 임준철, 「조선전기 화도시의 전변」, 『한국한문학회』 제60집, 한국한문학회, 2015.

만 아니라 『문장정중』이 無注本人 데 비해 모든 시에 대해 자세한 주석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풍아익선시』는 고시의 모범으로서 문인들 사이에서 두루 읽혔던 시선집이었므로, 조선전기 문인들의 도연명 시 이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朱熹 『朱文公感興詩』의 수록

『選詩續編』는 주희가 『楚辭後語』의 뒤에 「鞠歌」와 「擬招」를 든 예를 따라, 당송대 시인들의 작품 1백여 수 뒤에 주희의 「感興詩」 20수를 수록해 두었다.⁵¹⁾

「齋居感興」의 주석본은 조선에서 4종 이상이 간행되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재거감흥시』 판본은 세종 연간 庚子字로 간행한 (宋)蔡模 注 『文公朱先生感興詩』이다.⁵²⁾ 그후 명종 8년(1553)에 청주목사 李楨이 경자자본을 저본으로 『재거감흥』을 간행하면서 주희의 다른 여러 시들과 (元)陳普의 『武夷棹歌注』를 합본하여 목판으로 인쇄하였고, 이듬해 다시 이정이 이황의 가르침에 따라 이미 간행한 판본의 일부 편차를 개정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다시 그 이듬해인 1555년에는 「무이도가」의 申靈川 手書를 저본으로 그 부분을 개정하여 신편을 간행하였다. 이정이 청주에서 개간한 세 종류의 목판본은 ‘文公朱先生感興詩’라는 권수제로 되어 있다. 영조 26년(1750)에는 任聖周가 『재거감흥시』의 국내외 주를 집성하여 『朱文公先生齋居感興詩諸家註解集覽』를 편집하고 洪季修가 그것을 운각인 서체자로 간행하였다. 영조 29년(1753)에 閔遇洙가 쓴 발문이 있다.⁵³⁾

51) 「選詩續編序」, “右選詩續編目錄凡五卷 […] 今所編, 得唐古體, 合一百餘首 […] 唯王臨川, 間出一二, 及吾朱子, 識趣高明, 極意追復, 遺音未泯, 庶幾在茲. 至若感興諸篇, 論其詞藻, 雖未能, 超軼前古, 而所以探萬化之原, 達至理之奧, 足以垂世立教, 則又三百篇後之所絕無而僅有者, 故特置諸卷終, 是又『楚詞後語』而有「鞠歌」「擬招」之例云耳.”

52) 화봉문고에 宣德四年(세종11, 1429)乙酉九月日印의 경자자본이 소장되어 있다. 細黑口上下內向黑魚尾의 판심을 가지고 있으며 권말에 卞季良이 宣德三年 閏四月에 쓴 庚子字 鑄字事實이 있다.

임성주의 『朱文公先生齋居感興詩諸家註解』는 경자자본 『문공주선생 감흥시』나 청주 개간본 『문공주선생감흥시』의 蔡模 註를 참고하지 않고 새로 편집한 것으로, 범례에서 明 正統 연간에 京兆人 劉剡이 胡炳文의 『感興詩通』과 劉履의 『選詩續編補註』를 합편한 것을 상당부분 刪定하고, 金履祥의 『濂洛風雅批註』 및 宋時烈的 『朱子大全筭疑』를 취하여, 經文의 순서에 따라 段別로 添入한다고 밝혔다.⁵⁴⁾ 그런데 胡炳文의 『感興詩通』과 劉履의 『選詩續編補註』를 합편한 것이란 바로 『선시속편』 수록의 『朱文公感興詩』를 말한다. 『選詩續編』 권5에는 『朱文公感興詩』를 수록하였는데, 首行 ‘選詩續編卷第五’, 次行에 低3格으로 ‘新安胡炳文仲虎通’, 第3行에 低3格으로 ‘上虞劉履坦之補註’, 第4行에 低3格으로 ‘新安金德珉仁本輯錄’이라고 되어 있어, 이것이 호병문의 『感興詩通』에 劉履가 補註를 단 것임을 알 수 있다. 『選詩續編』은 劉履의 서문 다음에 호병문의 「感興詩通序」와 「感興詩通凡例」를 수록하였다.

53) 심경호, 「주자 『齋居感興詩』와 『武夷棹歌』의 조선판본」, 『서지학보』 14, 한국서지학회, 1994.

54)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 태학사, 2012.

〈參考 文獻〉

- 『風雅翼選詩』, 백광홍 내사 갑인자본(문화재청 제공, 보물 제1664호)
- 『風雅翼選詩』, 고려대 도서관 소장 목판본(청구기호: 만송 貴 300)
- 『風雅翼選詩』, 하버드대학 소장 명판 목판본(청구기호: 007775414)
- 『陶淵明集』, 충남대 도서관 소장 목판본(청구기호: 고서 集, 別集類—中國 224 2)
- 『陶淵明集』, 일본 내각문고 소장 목판본(청구기호: 314-0185).
- 『箋註靖節先生集』, 고려대 도서관 소장 재주갑인자본(청구기호: 만송 貴 397)
- 노요한, 「朝鮮後期 詠史樂府의 협운 활용 양상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57, 한국한문학회, 2015.
- 魯耀翰, 「白川先生の興研究と『杜律虞註』の興説について」, 『立命館白川靜記念東洋文字文化研究所紀要』 第10號, 立命館白川靜記念東洋文字文化研究所, 2017.
- 박철상, 「白光弘 內賜本『選試』의 書誌的 의미」, 『동아시아 문화연구』 38,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 심경호, 「주자『齋居感興詩』와『武夷棹歌』의 조선판본」, 『서지학보』 14, 한국서지학회, 1994.
- 심경호,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1999.
- 심경호,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6.
-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 태학사, 2012.
- 임준철, 「조선전기 화도시의 전변」, 『한국한문학연구』 제60집, 한국한문학회, 2015.
- 황선주, 「한국본 도연명집의 서지적 연구」, 『과학과 문화』 제9권 1호, 2012.
- 芳村弘道·金程宇, 「關於孤本朝鮮活字版『選詩演義』及其作者曾原一」, 『古典文獻研究』 12, 鳳凰出版社, 2009.
- 白川靜, 『興の研究』, 『白川靜著作集』 9, 平凡社, 2000.
- 奥野新太郎, 「劉辰翁研究: 宋元交替期の活動を中心に」, 九州大學博士論文, 2014.

[부록] 選詩補註凡例

- 一. 『選詩』云者, 梁昭明太子統所選者也. 詩自孔子刪後, 殆未易言. 然今人欲知漢魏以下諸作, 頗賴昭明此編之存, 愚故特於其中, 重加訂選, 得二百十有二首, 又常恨陶靖節詩在『文選』者甚少, 今就其本集, 增取二十九首, 又於『後漢書』得鄴炎詩二首, 於『文章正宗』得曹子建「怨歌行」一首, 於『阮嗣宗集』得「詠懷」二首, 皆『文選』所遺者, 總二百四十六首, 釐爲八卷, 其它如經史所載歌謠, 樂府集所錄古詞, 別當刪取而續傳也.
- 一. 重選之法, 必其體制古雅, 意趣愜遠, 而所言本於性情, 關於世教, 足爲後學準式者, 取之. 間有篇中一章可摘取者, 亦不舍去. 且三百篇, 有美有刺, 惟十三國變風, 或載男女淫奔之詞, 聖人固已垂戒於前矣. 今所選專以二南雅頌爲, 則其詞意稍有不合於此者, 一切刪去.
- 一. 所選詩, 較之曾原『演義』, 除陶詩外增多者, 幾八十首, 於『演義』所錄, 而『補註』之不取者, 三十九首, 如魏武帝「短歌行」, 文帝「芙蓉池」, 劉公「幹公燕」, 陸士衡「從軍」「苦寒」等篇, 其說并已見各人詩註, 又如古樂府「傷歌行」, 乃後人掇拾模擬, 淺近易到, 應休璉百一詩, 詞多鄙俚, 殊非雅製, 傅長虞「贈何劭」等, 雜冗而不精潔, 潘安仁「悼亡」, 徒發乎情, 而不止禮義, 謝寧遠從戲馬臺集, 景有餘而意不足, 顏延年「侍遊京口」, 雕斲藻績, 而乏蕭散之趣, 故皆不得而錄, 其餘自可類推矣.
- 一. 選詩四言, 雖多率皆拘拘模倣, 蹈襲風雅詞矣, 讀之使人可厭, 今特取其能自融化, 稍異於衆者錄之, 以備一體.
- 一. 凡一人之詩, 可采者多, 但詞意未免重複, 故必擇其尤者錄之. 若一人僅有一篇可取, 則亦錄而不遺也.
- 一. 凡詩人之家世出處, 歷仕年代, 節行封諡, 并詳考史傳, 略具始末于姓名之下, 使覽者有考焉.
- 一. 補註者, 補前人之所不足也. 大意竊取朱子『詩傳』爲法, 先明訓詁, 次述作者旨意, 間有先正論及此者, 亦附焉, 庶幾詞達而義明, 使初學易

入也。

- 一. 舊註李善釋事而遺意，其子邕，雖問爲補附，而不及精詳，五臣因其繁釀，乃更爲詁解，而乖謬尤多，近世曾原，頗得梗概，文或詳而不要，略而不明，使學者無所取正。然諸家之說，互有得失，故『補註』多采用之。凡衆說同者，則但稱舊註，若所論特異，則著姓名以表見也。
- 一. 詩意本有關於時事，舊註或晦昧而不宣，今爲考諸史傳，發其歸趣，然後知詩人之用意，非徒作也。
- 一. 詩中字有訛誤，其證據明白者，正之。註云舊作某字非是，若字本誤，衆說乃牽強而不通者，圈之。註云當作某字，有疑似者，不圈。但云疑當作某字，或有音聲之訛，字畫偏傍之誤，當作某字者，并疏其下。
- 一. 詩有協韻，并依『詩傳』及『楚辭集註』例，仍參考吳才老『韻補』，各附其下。
- 一. 語有精至，或意思悠遠者，從旁點識，若含蓄有餘韻者，圈，意切要而語稍晦，或未工者，抹，庶使學者，或得因此而尋玩其意味也。

右凡例十二條，述所以補註選詩之意如此也。噫！作詩固難矣，而知詩爲尤難。自秦漢置博士，各專一經，而治詩者，皆不免惑於小序，失其本義，至宋殆于百年，乃有朱子『集傳』者出，而後學始得其宗，詩果難知哉！漢魏及晉，作者去古未遠，而風雅之餘韻猶存，惜乎註者未悉其蘊，使詩人優游詠歌之趣，忠憤懇切，窮阨悲怨之情，可以使人感發而興起者，不獲見知於後世，是可歎也。予窮居草澤，竊以吟詠自娛，因獲究夫作者之旨趣而粗有得焉，輒不自揆，而爲之補註，雖不敢妄擬前人著述之萬一，然初學之士或有取焉，未必無所助也。同志之士，幸相與訂正之。

Abstract

The publication of Fengyayi Xuanshi (風雅翼選詩) in the early Joseon period and its way of annotation

Noh, Johann*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Fengyayi Xuanshi* published with Gabin type in early Joseon period and to describe the features of its grosses.

King Sejong published various books with newly casted types and made local governments to republish them so as to improve national cultural level. He ordered to publish *Xuanshi Yanyi*(選詩演義) with Gyeongja type in 1422 and 1434, *Fenlei Buzhu Litaibo Shi*(分類補註李太白詩) in 1435 and *Tang Liuxiansheng Ji* (唐柳先生集) in 1440, both of them with Gabin type, and *Tangshi Guchui*(唐詩鼓吹) and *Xuguchui*(續鼓吹) with Gabin type, to develop poetics. It was after the series of publication of Chinese literature books that he ordered to publish *Fengyayi Xuanshi* (風雅翼選詩) edited by Liu Lü (劉履) with Gabin type.

Fengyayi Xuanshi is composed of three parts: *Xuanshi Buzhu*(選詩補註) which is the selection of poems from *Wenxuan*(文選) and other poems omitted in *Wenxuan*, *Xuanshi Buyi*(選詩補遺) which is a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chosen from literatures in ancient China as well as works of the masters, and *Xuanshi Xubian*(選詩續編) which is a collection of poetry in Tang and Song period with *Ganxing shi*(感興詩) by Zhu Xi (朱熹) attached. Liu made it clear that it was a task to follow the intention of master Zhu, and that he also followed the way of commentary suggested in *Shi Jizhuan*(詩集傳) and *Chui jizhu*(楚辭集注).

The commentary of *Xuanshi Buzhu* is, in its form, similar to that of *Shi Jizhuan* which is made up of *quanwaizhu* (圈內註, commentary inside the circle) that explains the meaning of words and its sound etc. and *quanwaizhu* (圈外註, commentary outside the circle) that explains the meaning of the poems. However, Liu tries to explain the poet's mind

* Ph.D. student at Korea university/ yhnoh1214@hanmail.net

behind the words while following up the flow of sentiment expressed in a poem. It is unlike *Shi Jizhuan* which clarifies the subject of the poems with every sentence explained. As to the theory of Xing (興), Liu follows the theory suggested in *Shiji zhuan* on the whole.

Keyword: *Fengyayi Xuanshi* (風雅翼選詩), *Shi Jizhuan* (詩集傳), *Wenxuan* (文選), literature commentary, theory of Xing (興), King Sejong (世宗), Liu Lü (劉履), Zhu Xi (朱熹)

투고일 : 5월 25일, 심사완료일 : 6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19일